

친환경차·로봇...미래산업 한눈에 본다

20~22일 DJ센터서
그린카전시회&로봇박람회
31國 284개 업체 참가
볼거리·체험거리 풍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산업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로봇산업 박람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20일부터 3일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제그린카전시회'와 '2019 광주국제 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를 통합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31개국 284개 업체가 참가한다.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

벤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첨단 기술과 트렌드 변화, 로봇기술 등을 504개 부스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종합전시회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국제그린카전시회에는 기아자동차와 토요타, 닛산, 비엔더블유(BMW), 마스타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등 151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의 대표 친환경차와 관련 주변부품, 자율주행시스템, 커넥티드카(통신망에 연결되는 차량) 등이 전시된 252개 부스에서 친환경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광주시는 그린카전시회에서 광주 자동차 산업의 미래 50년을 볼 수 있는 홍보관도 마련한다. 홍보관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

스터 조성과 부품인증센터 건립, 수소에너지 기반 생태계 구축 등과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친환경자동차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시인하고 공유한다. 함께 개최되는 2019 광주국제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에는 사물인터넷 홈가전을 비롯해 스마트 가전제품과 로봇 산업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된다. 삼성전자, 광주공동브랜드 등 지역 대표 가전 대기업을 포함, 국내외 133개 업체가 참가한다. 사물인터넷 기술 접목 스마트 대형·명품 소형가전 체험관, 의료로봇 기기와 광주지역 어여가전 등 광주시가 육성중인 정보통신기술(IT)·로봇 제품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도 접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차량 시승 체험 프로그램,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체험, 교통안전 체험, 친환경 완성차 미니모터쇼

등 미래지향적 친환경 에너지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 빛고을로봇페스티벌, 빛고을드론경진대회, 제작드론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우수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글로벌 해외 전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산업, 스마트 가전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의 융합 발전이 광주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이번 전시회가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장애정류소 40곳 추가 설치 광주시는 연말까지 무장애정류소 40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장애정류소는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설물을 없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계한 정류소로 지난해 처음 20곳이 설치됐다. 지난해 구축한 남광주농협 인근 무장애정류소 모습.

광산구 쓰레기 행정 '진통'

뒤늦은 통합 추진에 업체 반발 파업·단식 농성

광주 광산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놓고 첫 단추를 잘못 꿴 실수를 바로잡으려다 호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5개 업체가 맡아왔던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통합·전담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당시 4개 업체는 흡수·통합한 반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업체 한 곳은 기득권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로 통합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구간의 쓰레기 처리업무를 맡겨왔다. 이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특혜시비가 제기되어 왔으나 광산구는 A업체와 수년째 매년 1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광산구가 뒤늦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을 추진하자 A업체가 반발, 파업을 선언한 뒤 지난 14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TF팀을 구성, A업체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걸고 일부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해당 업체가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파산할 경우 퇴직금이 적립돼 있지 않는 등 경영상 문제점이 대두 돼 경영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은 찬성하고 있어 노노갈등까지 초래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업체의 존치를 광산구에 요구하는 등 특정업체를 편들고 나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환경부의 '지방계약법에 근거 없는 연장계약 등은 부적절하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 어린이집 구인·구직
통합 사이트 '인력뱅크'
4월까지 1616명 취업 지원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구인·구직 통합 사이트 '인력뱅크'가 보육교사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 4월 말까지 1616명이 인력뱅크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인력뱅크'를 통해 3245명의 구인·구직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뱅크는 지난 1998년 광주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탁해 2000년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구인·구직 시스템'이다.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제21회 광주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빛고을유치원과 월곡초등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 8개 팀, 초등학교 6개 팀 등 총 14개 팀, 40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광주시 1기분 자동차세 255억 과세...7월1일까지 납부

26만 7025건 부과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7025건에 대해 25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본 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규모는 광산구와 서구가 각각 65억원이며, 북구 64억원, 남구 47억원, 동구 1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

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산계좌 입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市 농기센터 '우리밀 바로 알기'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제과·제빵 인, 우리 밀 바로 알기 교육'에 참여할 제과·제빵업 종사자 등 3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대표 농산물인 우리 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주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총 2회에 걸쳐 우리 밀 생산 현황과 가공 특성, 우리 밀 연구·가공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개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단체는 (사)대한제과협회 광주지회를 통해 접수한다. 교육생은 현재 제과·제빵업 종사자와 향후 제과·제빵업 종사자 희망하는 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62-613-5282.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